"누가복음 6장 45절~49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6장 45절~49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379장(새찬송가 204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4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옛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광야에서 죽은 중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교훈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 10:10,11) 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을 법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고을에 박돌쇠라는 사람이 푸줏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고을에 살고 있는 양반 가운데 좀 거만한 자가 푸줏간에 와서 "돌쇠야, 고기 한 근만 가져오너라."하니 한 근을 썰어주었습니다. 그 때 다른 한 양반이 와서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나."하니 앞의 양반보다 훨씬 큼직하게 썰어주었습니다. 먼저 온 양반이 이를 유심히 보고 벌컥 화를 내어 "예끼, 이 못난 놈아, 어찌 나에게는 저 양반보다 적게 주느냐?"라고 따졌습니다. 푸줏간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대감께 드린 고기는 돌쇠가 썰어 드린 것이고, 저 분께서 가져가신 고기는 박 서방이 썰어 드린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찌 같을 수가 있으리까?" 하였습니다. 두 양반이 소고기를 달라고 말한 표현의 차이는 성품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성품과 존중하는 성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은 천성적인 면도 있지만 살면서 마음에 누적되는 생각에 의하여 형성됩니다. 잠언서에 기록되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잠 23:7) 하였습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말을 훌륭하게 잘 하려면 마음의 창고에 훌륭한 생각들이 쌓여있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마음에 쌓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힘써 마음에 쌓아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좋지 못한 생각들이 밀려 나갑니다.

저의 고향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낮은 산 위를 수 만평 개간한 농원 안에 있고 그곳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 아래에는 샘이 솟아나는 웅덩이도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 나면 웅덩이 바닥의 흙으로 인해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세수하러 가보면 완전히 정화되어 있습니다. 샘구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맑은 물이 흙탕물을 도랑으로 다 밀어내 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흙탕물과 같은 생각들을 정화시키려면 믿음, 소망, 사랑의 생각을 마음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고하기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8)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구절로 가득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찬송을 불러 그 가사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은혜로운 설교들을 거듭 들어서 마음에 쌓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암송하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추한 말을 한다면 마음에 마땅히 채워야 할 생각들을 아직 충분히 가득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기서 "주여"라고 번역된 원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의 신앙고백에 해당됩니다. '주여'라는 호칭은 또한 주종 관계에 있는 종이 주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종은 머슴이 아닙니다. 머슴은 주인과 고용계약을 하고 일합니다. 중도에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며 주인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종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평하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어야 합니다. 47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들었으면 행하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듣고 행하라." 이 두 마디의 말 사이에 다른 말을 삽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영국 해군에 근무하는 한 해병이 군기(軍紀)를 범했다는 이유로 대단히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그 벌이 너무 심했으므로 시민들의 비난하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신문은 독자들에게 그 엄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답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러 해 동안 영국 해군에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벌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군기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병사가 복종하도록 훈련하는데 있고 이러한 복종 위에만 군대생활이 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경험담을 말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거센 바다에서 대형의 배를 끌고 있는 소형의 증기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두 척의 배는 쇠줄로 매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과 물보라 속에서 소형 증기선의 선장의 한 마디 권위 있는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모두 엎드려."라고 소리쳤습니다. 승무원 전원은 날쌔게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끊어진 쇠밧줄 한쪽이 마치 발광하는 뱀처럼 내리쳤습니다. 만일 누가 거기에 맞았더라면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승무원이 기계적으로 복종했기 때문에 아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선장의 명령에 이유를 물으려고 서 있었다면 그는 처참하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철저한 복종이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버릇없음을 지나서 망령된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씀과 일치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은 신뢰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다 신뢰하며 따를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말한 것일지라도 그 말이 다 사실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신뢰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신뢰하고 따를 수는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다 사실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아래 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신실하여 말씀대로 다 이루어짐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라고 실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여도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능력이 부족함을 인하여 애통합니다. 이런 성도를 도우시려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하고 힘쓰면서도 죄의 힘을 떨쳐 버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 7:25)라고 충심(衷心)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까지도 다 담당하여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자신의 전 존재를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까지 다 아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름은 건기이고 겨울은 우기입니다. 그 땅에는 와디(wadi)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바싹 마른 골짜기인데 겨울에는 급류가 흐르는 개천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골짜기에 접한 평지의 모래 흙 땅에 그냥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으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우기에 가서는 기필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순식간에 골짜기를 휩쓸고 내려가는 급류 때문입니다. 반면에 땅 속 반석에 도달하기까지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지만 우기에 든든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인군자 중의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요 1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하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 14:9,10)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모두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 그리고 하실 일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란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은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러나 핵심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② 사람이 죄 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 가는 길이 무엇인가? ③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계시된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흙과 모래뿐인 맨땅 위에 기둥을 세워 집을 지은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과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사이비 신자들입니다. '사이비 신자'란 겉으로는 비슷하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 신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 말씀 앞에 몇 가지 비유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 곧 사이비 신자들의 행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 7:13~15)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이비 신자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과 길이라고 하였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하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인가를 노아 방주 사건이 잘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예언은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를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이므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신학과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사이비 신자가 가는 문이요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이리같이 행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비 목사, 사이비 신학교수, 사이비 신자는 교묘한 말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서 활동합니다. 외형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분별하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말과 행동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 신자는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며, 노략질하는 이리를 추종하므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이비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글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일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유란 진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만일 그림자가 그러하다면 실제는 어떠하겠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며 사람마다 소금 치듯 함을 당하는 곳이며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그러하다면 그 실제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큰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나, 흙 위에 지은 집은 탁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히 묘사하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신자는 비와 홍수와 광풍이 닥쳐와도 그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여도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여도 요지부동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습니다. 세속과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영생과 천국 소망이 영혼에 가득하게 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마치 환난이 폭우처럼 홍수처럼 광풍처럼 밀어 닥쳤습니다. 욥은 피력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하였습니다. 욥의 몸에 악창이 심하여 집안에 있지 못하고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욥이 응대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였습니다. 욥의 아내의 신앙은 모래 흙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욥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 여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열거하기를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3~27)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위기를 맞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굴의 용기와 신앙의 위력을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8~10). 사도 바울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폭우처럼 홍수처럼 광풍처럼 밀어 닥쳐도 그의 신앙은 아무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험, 환난, 핍박, 유혹이 밀어 닥치니 신앙이 파탄 난 신자들에 관하여서도 바울이 언급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갈 1:6,7)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딤후 4:10)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이비 신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모래 흙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고난, 핍박, 시험, 유혹을 받아도 신앙이 요지부동하기를 바랍니다.